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70 回

第 5 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2007年 12月 13日 (木) 午前 10時

場 所：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会) 第5次 委員會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번안의 건(박희진 의원 외 6인 발의)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면
2.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 계수조정 및 의결..... 30면
3.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번안의 건(박희진 의원 외 6인 발의)
..... 32면

(10시 22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

취한 다음에 심사는 상정된 안전별로 각각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4분)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원근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教育監 李元根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동지가 눈앞에 다가선 12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숙한 경륜과 탁월한 교육적 식견으로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모토로 교실수업 혁신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여 우리 대전이 한국 교육, 미래 교육, 행복 교육의 중심이 되고자 1만 5,000여 교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계획인 점을 해량하시어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吳丁燮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세입금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변경과 세출예산 집행 결과에 따른 과부족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660억 1,56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에 해당하는 409억 8,6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74억 3,4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1억 1,414만원이 감액되어 총 343억 4,1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 수입으로 시·도세 전입금 12억 4,300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 전입금 44억 5,050만원과 비법정 전입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0억 5,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재산수입은 16억 2,996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2,237만원, 잡수입은 23억 7,944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562만원이 감액되어 총 40억 2,6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타 지원금은 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예퇴직 수당분 명목으로 계상한 지방교육세는 10억 6,8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교원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증액 등 35억 1,6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으로는 학교신설비는 상대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17억 4,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증·개축비는 대전만년고등학교 외 4개 교의 급식실 및 식당 증·개축으로 39억 5,831만원,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실습실 증축 및 기타로 7억 2,736만원, 성세재활학교의 교사 수선으로 2억 7,930만원 등 49억 6,497만원을 증액하였고 외국어고등학교 토지매입비는 1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48억 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관리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6억 3,000만원, 다목적체육관 대수선 및 노후 교사 철거는 1억 8,335만원으로 총 8억 1,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는 25억 6,203만원, 교무실 환경개선은 5억 9,500만원, 화장실 수선은 36억 6,600만원, 다목적강당 증축은 7억 8,900만원, 후로링 교체 및 전기시설 개선 6억 9,664만원으로 총 83억 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을 포함한 장학 및 기타사업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15억 7,000만원, 시·도교육청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 3억 100만원, 특수교육 지원은 3억 793만원, 유아교육 지원은 14억 3,760만원, 방과후학교 지원은 8억 3,97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12억 2,500만원, 사교육비통계시스템 구축은 12억 9,900만원, 전문계고등학교 지원은 5억 5,900만원, 교사용 및 학생용 노후 PC 교체는 80억 9,840만원, 체육 지원은 4억 1,640만원, 평생교육 지원은 3억 8,831만원, 급식 지원으로 17억 4,900만원 등 총 209억 1,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방교육 혁신 통합디지털 시스템 운영은 7,003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1억 4,084만원,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43억 5,415만원 등 총 45억 9,0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005년도 발행한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1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내국세 세입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 여건은 실질성장률 상승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며 특히 내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 인상으로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유아교육·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액으로 해당 사업을 교부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또한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을 위한 투자확대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장의 예산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특수교육 및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하며 학력신장·영재교육·외국어 활성화를 위한 교단지원 강화 그리고 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예상되는 세입을 정확히 포착하여 빠짐없이 계상하고 명예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부담 조건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학교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기본운영비를 학교급별, 규모별로 차등 인상하였으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직접교육비를 증액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출발점 평등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신·증설 및 학생수업과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여건개선 사업에도 역점을 두는 한편 일반 경상사업과 소모성 행정경비는 최소의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86억 5,06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5.4% 해당하는 1,490억 3,7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78.3%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07년도보다 1,378억 1,742만원이 증액된 8,754억 9,856만원이며 세입예산의 17.4%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07년도보다 61억 313만원이 증액된 1,949억 6,098만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1,906억 6,498만원, 비법정이전수입 4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07년도보다 38억 7,772만원이 증액된 442억 7,809만원이며 세입예산의 0.3%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채는 명예퇴직수당으로 2007년도보다 12억 3,900만원이 증액된 3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복지비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6,820억 1,620만원, 학력신장, 유아교육 진흥,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429억 5,439만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교육복지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347억 2,525만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03억 9,350만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인 학교재정지원관리로 1,993억 4,480만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738억 1,980만원으로 총 1조 432억 5,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19억 5,949만원, 현장실습비 및 취업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은 1억 6,598만원으로 총 21억 2,547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교육일반부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로 266억 4,760만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411억 5,180만원, 예비비는 54억 7,182만원으로 총 732억 7,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 투자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을 뿐 아니라 단위학교 지원중심 예산을 확대하여 일선 교육현장중심의 지원을 강화하였고 2005년에 발행된 지방채의 조기상환원금을 반영하는 등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예산안임

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2007-2011)
-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참고 자료
- 2008년도대전광역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2008년도대전광역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6건 별도보관)
-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 별도보관)

.....
○委員長 吳丁燮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이원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꿈 있고 희망 있는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본 예산안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미비한 점들 몇 가지와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예산이 많이 삭감된 시설과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이네요.

이치범 국장께서 답변하시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은 2008년도 예산안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金載京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교육적 환경을 의미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교육적 환경이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교육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저하됐는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관심 저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사업부의 내용보다도 전체 총액으로 10%선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교육적 환경의 필요성의 역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역설이 부족하다는 말씀보다도 그동안 저희 교육재정 여건이 2005년도, 2006년도 접어들면서 재정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가 적게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설학교하고 기존학교의 상대적 비교감 때문에 기존학교

의 낙후된 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 개선을 상당히 바라는 갈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거에 못 했던 부분까지도 증액해서 내년도에 환경 개선 쪽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년여 동안 준비해서 전 학교에 대한 시설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책걸상 그 다음에 급식시설부분 이런 부분…….

○金載京 委員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교육환경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교육재정 여건상 2002년, 2003년까지는 그래도 300억원 이상 예산이 반영됐는데, 2000년 전만 해도 300억원 이상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005년도까지도 300억원 이상 반영됐는데 2006년, 2007년에 거의 시설비 투자에 반영 못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못한 것에 대한 예산이 한 600% 오른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또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요, 열악한 학교가 있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도 그렇지만 학교 급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金載京 委員 급별로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학교별로.

○金載京 委員 여기 사립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동구와 서구를 나누었을 때 어느 지역이 편차가 심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신설학교하고 기존학교의 숫자 때문에 그런데요, 동구 쪽에 기존학교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당연히 시설이 낙후됐으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환경이, 교육적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학습능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아까 답변했고 또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학교의 아이들과 또 시설이 열악한 학교 아이들, 다 같은 대전시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상임위원회에서 국장께서 충분한 당위성과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10%나 삭감돼서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상임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

어려움을 주면 되겠어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존중하고 다시 예결위가 본 심의를 하게 되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셔 가지고…….

○金載京 委員 모든 예산을 예결위에 떠넘기고 예결위원들께 어떤 처분을 바라는 것은 올바른 상임위 활동이 아니지요, 소관 사항으로써.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 보충질의 겸 상황설명을 조금 할게요.

○金載京 委員 조금 있다, 질의하는 중인데.

○金泰勳 委員 중심부분을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 계속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金載京 委員 끝난 난 다음에 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그만한 충분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교육청에 어떤 예산 산정 배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10%나 삭감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이 중요한 예산이 10%나 삭감돼서 예결위에 딱하니 올라왔는데…….

교육청 관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대의회간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각 국장들께서 또 각 교육장들께서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본 위원이 상임위 회의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법률이 개정돼서 교육비가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증

액이, 법률이 됐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0.6% 증액된 교육비 부분이 대전시교육청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되는 재원이 얼마나 증액돼서 내려옵니까, 대략 1,500억원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1,490억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대략 1,500억원 되는데, 그 1,50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10% 재원을 삭감시켰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왜 답변을 정확히 안 하세요.

금년도 시설개선비로 대략 예산계상이 본예산 당초예산 기준이 40억원 정도가 됐어요, 본예산 330억 정도로 무려 몇 퍼센트입니까, 한 700%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편성의 문제점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시킨 이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상임위 판단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십니까?

왜 그랬냐하면 결국에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의 학습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실질적인 교습,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또 아이들의 인성 개선 작업,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예산 판단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드웨어적으로 예산 계상하고 예산 편성하기 쉬운 부분만 다 교육청에서는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점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개선과 하드웨어적인 요소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다시 추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노력을 보여달라고 예산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원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설명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이런 주장도 맞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구성비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490억원, 이 늘어난 부분이 시설비에 집중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약 5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비에 77억원을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비가 100억원이 들어갔고 지방채상환 그리고 여기 사업비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 부분, 이것이 교수학습지원 활동부분인데 이 부분이 12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설비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230%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 2007년도에 전혀 투자가 못 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시설환경부분의 낙후된 부분을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는 1,500억원을 다 하드웨어 부분에 넣지 않았느냐 지적을 주셨는데 그쪽으로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부분도 42%에 해당하는 128억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예산편성의 중장기계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향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에서는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그 부분도 지적을.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예산판단은 정확한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 근거가 나와야 한다, 그냥 쉬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예산편성을 너무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공평성, 여러 가지 객관성, 예측성 이런 부분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삭감시킨 것 분명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여기 예결위에 와서는 그런 답변을 정확히 안 하세요?

어쨌든 교육청 임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왜 그런 판단을 갖고 삭감시켰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정확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시킨 것이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삭감시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500억원 내국세 0.6% 16개 시·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재원이 늘어날 때는 그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중장기적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정작업을 하고자 개선시키고자 했던 부분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金泰勳 委員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 얘기가 맞지요?

맞습니까,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상임위 판단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교육청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이 있겠지만 상임위 판단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조정했던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답변하셔야지요.

‘그런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판단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상임위에서 왜 그런 삭감을 했느냐 내용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그리고 ‘그렇지만 교육청 판단은 이렇다’ 이렇게 답변되어야지 상임위 의견은 전혀 무시되고 교육청 판단만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주관적, 자의적, 임의적으로 삭감시킨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고 대전시 학부모들,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예산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상임위에서 예산편성 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차후라도 정말 이런 학교교육 특히 교육적 환경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왜 상임위에서 삭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과 불만 내지는 교육청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할 리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라도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 내지는 학교 개선필요성에 대한 역설을 자주 피력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중등교육과에서 3,000만원 삭감된 것이 하나 있는데, 영어교육활성화 지원 설명해 주세요.

○教育局長 姜鎮洙 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활성화 지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우선 교육청이 예산편성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는 데 기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교육청은 지금 세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과 영어교육과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면서 저희들이 결과를 홍보하고 학부모들께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하는데 충분한 말씀을 못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영어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教育局長 姜鎮洙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教育局長 姜鎮洙 예, 그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영어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데이터 매뉴얼이 있나요?

○教育局長 姜鎮洙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金載京 委員 평가도 안 해놓고 예산만 올려서.

○教育局長 姜鎮洙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이번에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도 결과에 따라서 홍보하고 이렇게 방송매체를 통해서.

○金載京 委員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 내에 고학년들 4·5·6학년의 영어교육 평가수준의 데이터가 있느냐 말입니다.

○教育局長 姜鎮洙 저희들이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 제가 2년 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할 때도 충분히 주문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매뉴얼을 안 해냈다는 것은 자성해야 합니다.

○教育局長 姜鎮洙 반드시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깎이지요, 이거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教育局長 姜鎮洙 예,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와 병행해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외교류협약 체결을 했지요, 올해 했지요 호주와?

○教育局長 姜鎮洙 예, 호주와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300만원씩 1,500만원 이게 여비입니까?

47쪽에 있어요.

○教育局長 姜鎮洙 …….

○金載京 委員 아니, 호주교육 이것은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얼마 안됐는데?

○教育局長 姜鎮洙 제가 알기로는 여비같이 생각됩니다.

○金載京 委員 다섯 명 여비가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입니까?

○教育局長 姜鎮洙 다섯 분이 다녀오셨는데 교육감님과 담당이, MOU를 체결하면서 전문가들이 간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전문가라면…….

○教育局長 姜鎮洙 영어담당 및 장학사를 모시고…….

○金載京 委員 자세한 설명자료를 배부해주세요.

계속사업이니까 1년마다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教育局長 姜鎮洙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사전에도 전부 가시지는 않고 저희들이.

○金載京 委員 언론에 표출되기는 호주와 앞으로 연계성을 띠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삭감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뭐냐고, 이 여비 해마다 계속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심도 있게 질의를 못하겠네.

○教育局長 姜鎮洙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책담당관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정책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교육정책담당관 최재천입니다.

○金載京 委員 설명해 주세요.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현재 호주와의 MOU체결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정책실에 2008년도 본예산이 서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얼마 서있어요?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1,500만원 서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섯 명분이지요?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게 계속 매년 관계자들이 가는 것입니까?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그렇지 않고 그 예산은 후속사업과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외국과의 MOU를 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교육정책담당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대전과 호주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거리가요?

대단히 멀더라고요.

○金載京 委員 실효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지속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현지에 가서.

○金載京 委員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예, 솔직하게 실효성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있어요?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예.

○金載京 委員 호주가 미국보다 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남아시아보다 싸다는 얘기입니까?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그동안 시청과의 관계도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그런 판단이 들고 또 현지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느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해도 되겠어요?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브리즈번이라고 아세요?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예, 알지요.

○金載京 委員 대전시와 자매도시인 것 알고 있지요?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전문가 그룹들이 가서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세워 놓았습니까?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후속사업으로 실무자선에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활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8년도에 또 가는 것이지요?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예, 그 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2008년도에 실적 내지는 성과를 갖다주세요.

○教育政策擔當官 崔載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1억 9,000만원 삭감 설명해 주십시오.

○教育局長 姜鎮洙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실 예산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 해주셨습니다.

저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생각이 들면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차원에서 타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보건실 현대화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개 학교에 대해서 현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아마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는 요즘 병원시설 잘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학교 자체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기구 같은 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설명을 못 드리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교육국장이지요?

○教育局長 姜鎮洙 예.

○金載京 委員 중·고등학교 아이들 보건실 탐방해보신 적 있어요?

○教育局長 姜鎮洙 직접 학교에 있을 때…….

○金載京 委員 몇 학교나 가보셨어요?

○教育局長 姜鎮洙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런 예산도 정말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현재 보건실 또는 보건교사의 실태라든지 이게 과연 학교에서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예산의 실효성 충분히 검토하고 올렸으면 이것 분명히 삭감 안됐습니다.

○教育局長 姜鎮洙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하면 오늘 밤새우겠어요.

교육국장께서는 앞으로 각 학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실태라든지 정확한 데이터 통계를 갖고 계시고 자주 학교를 탐방하세요.

○教育局長 姜鎮洙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채무현황이 금년 말로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추경에서 160억원을 상환하면, 순수 자체부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80억원에서 428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제2회 추경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428억원이 내년도분으로 남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08년도 예산으로 얼마 상환하기로 되어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18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188억원이면 대략 240억원이 남는데 이것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교부금도 받아서 예산이 1,500억원 증액돼서 받지요, 세입에서?

그냥 갚아버리지 남겨놓는 이유가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부채상환에 더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태훈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관된 예산편성은 아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6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은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었고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금년에 다시 세운 계획은 향후 5년간을 정확히 예측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 늘어난 부분을 감안할 때 전액을 다 부채상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고, 교육비에서도 부채탕감을 위해서 감채기금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갚아야 하겠지만 내년도에 불용예산이라든지 후년도까지 가면 240억원을 다 갚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180억원만 세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240억원을 안 갚는 대신 1,500억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당초 예상은 됐던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알고 있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고 있었는데 대신 주로 갚지 않고 사업예산 쪽으로 반영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분석한 것이 있는데 나누어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예산편성하는 방식이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속에 인적자원운영 이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들어있고 기관운영비 부분은 다시 재분류했습니다.

이게 인건비 부분은 교원과 일반직을 포함한 순수인건비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구성비는 70%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7.2% 증가한 52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0.5% 증가했고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약 10%인 77억원을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사업비 부분이 전년 대비 817억원이 증액했습니다.

인적자원운영은 16억원이 증액됐고 교수학습지원이 128억원이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학력신장, 영·유아 특수교육, 외국어 교육 이런 부분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237.3%가 증액됐고 교육행정일반이 261.9%인데 아까 교육여건개선은 되어 있고 교육행정일반은 어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에는 교육감 선거비용이 1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재정지원관리가 27억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신설학교가 작년에 10개교였는데 내년도에는 2개교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개교경비가 줄었기 때문에 물량감소로 인해서 2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선거가 예상외로 잡혀있고 내년도에, 그동안 3년 동안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에서 500억원이 증액됐고.

○郭泳敎 委員 그러면 240억원 부채를 내후년도에는 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내년 말과 후년까지 가면 건전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2회 추경에도 그랬고 인건비를 보니까 예측을 못 해서 계속 불용되고 내지는 감액시키는데 해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타시·도도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결원발생 부분도 있지만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을 적게 운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남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게 되면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예비비 같은 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비비는 저희 교육청이 0.4%,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1% 하고 있는데 예비비는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비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럴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비비 얼마 계상되어 있는데, 한 35억원 정도 되어 있던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51억원 정도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비비로 어느 정도 충당될 것 같은데요, 안 쓰고 있다면.

특pecially 인건비를 많이 계상하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인건비 부분은 워낙 일반직과 교원이 많기 때문에, 명퇴

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차의 한계를 줄이는 부분에 주력하지만.

○郭泳教 委員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148억원이나 돼요.

2004년도에는 11억원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 70억원, 2006년도에 104억원, 2007년도에 35억원, 평균적으로 74억원 인데 5년 동안 대략 정확하게 추계하고 편성한다면 몇십 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예비비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 계상을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 사업예산이나 다른 쪽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잘 검토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오차가 발생이 안 되도록 예측하겠습니다만 항상 이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디지털통계시스템을 가지고 적용하면 보다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教 委員 알겠습니다.

대전외국어고 토지매입비가 계속 삭감되지만 금년 예산에도 편성되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외국어고등학교를 둔운학원에서 인수할 적에 운동장 부분과 운동장 뒤에 야산 부분이 있습니다.

○郭泳教 委員 내용은 아는데요,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교사위에서 심의해주셨을 때 운동장 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말씀이 있어서 작년 1년 동안 여러 차례를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 측에서는 운동장 부분만큼은 떼어서는 매각을 못 하겠다, 전체 다 매각해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돌리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매수하려고 합니다.

○郭泳教 委員 이번 상임위에서 승인된 것입니까?

반영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반영됐습니다.

○郭泳教 委員 마지막으로 2008년도 교원 명예퇴직 수당분으로 39억 1,300만원을 지방교육채에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방교육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명예수당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퇴직하는 분들이 명예수당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는데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발행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분은 계상하지만 내년 2월 정도에 기채를 하게 되고요, 내년도분은 내년도에 퇴직하는 분을 예상해서 교육부의 승인받아서 편성합니다.

이 부분은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가 전부 부담해주는 부분입니다.

○郭泳敎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인건비성경비가 추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랑 연관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인건비기 때문에.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명퇴수당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郭泳敎 委員 다른 내용인데 명퇴수당은 반드시 교육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재원으로 할 수도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전국적으로 명퇴수당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발행하고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광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7쪽, 598쪽, 599쪽을 봐주십시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소속 내용과 서부교육청 소속 내용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각 학교별, 신탄진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범동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새일초등학교, 용전중학교, 중리중학교, 범동중학교, 신탄진중학교 여기가 동부교육청 소속이고, 서부교육청 소속에 문지초등학교, 전민초등학교, 전민중학교, 문지중학교, 어은중학교 정화조 철거사업비와 관로공사가 일괄적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 쪽으로 집중 편성됐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학교별로 정화조탱크를 만들어서 정화해 내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관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일괄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가던 부분을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나누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 쪽으로 예산을 치우쳐서 하다 보면 다른 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는 여유예산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대상 학교 중에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가도록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해주는 부분입니다.

○沈俊洪 委員 당연히 시설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긍정합니다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고지원사업이에요, 전액?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자체사업입니다.

○沈俊洪 委員 자체사업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단시일에 회기 내에 예산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이 부분이요 학교 정화조가 자체에 있음으로 해서 악취발생 부분 그 다음에…….

○沈俊洪 委員 물론 그것은 압니다, 이런 부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예산을 한쪽으로 1년 내에 많은 학교를 일시에 발주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러면 작년도에는 뭐를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다른 학교들을 시설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이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6년, 2007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비 쪽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학교를 비롯해서 다른 학교들도 발생이 되는 데는 계속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환경개선을 하자는 데는 본 위원은 그 목적에 동감을 하면서 동의합니다.

예산편제를 하는 과정에 효율적인 예산이 반영되었겠느냐 하는 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남아 있는 다른 학교가 또 있어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이 내용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종말처리시설로 관로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학교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 연차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학교에 몇 개를 더 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보문산 지역이나 고가 야산지역 이런 부분은 관로가 직접 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처리시설로 가는 관로가 그 쪽도 연계될 수 있다면 이 학교들도 연차적으로 정화조 개선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沈俊洪 委員 구체적으로 몇 학교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동부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대상이 73개교고요, 2008년에 8개교를 하게 되면 향후 65개교가 남게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늦춰진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바뀌더라도 대전시에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 부분들이 개설이 되면 거기와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야 될 데가 있고 아직 못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초등학교가 48개교, 중학교 25개교해서 73개교가 개선대상인데 이번에 8개교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65개교에 대해서도 학교에 있는 정화조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관로를 매설해서 악취라든지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沈俊洪 委員 정화조를 철거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관로를 매설해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동안에 상당히 무관심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교담장없애기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 목에는 없는 사항인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년도 계획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단위학교를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12월에 해야 됩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담장없애기사업을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요,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구청으로 가서 구청에서 단위학교 선정이 되면 직

접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학교 운영을 시에다 맡깁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시에다 맡기는 부분이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구청과 학교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통해서 편성되어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시에서 몇 개 학교나 내년에 계획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沈俊洪 委員 글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학교라면 당해 학교장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 반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신청을 아마 할 것입니다, 구에서요.

신청을 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그것이…….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필요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개 교가 있고 어떤 사업목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앞으로 시와 협조해서 사전에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학교담당 없애는 사업이 성공적인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반대급부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재량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당해 학교장이나 학부형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의견들을 아직까지 분석을 못 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앞으로 본청에서 이 부분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내년도 계획을 알아서 말씀드릴까요?

○沈俊洪 委員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370쪽, 371쪽에 e-러닝선도학교 운영, e-러닝 일반구축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사전적 의미는 전자학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선도사업으로?

○教育局長 姜鎭洙 예.

○金載京 委員 성과는 어땠어요?

○教育局長 姜鎭洙 성과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정보과학기술과에서 하면서 상당히 아마 아시다시피 외교하고도 직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호주하고.

그래서 대덕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제 교육부 차관님도 오셔서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칭찬하고 권장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학력신장 페스티벌에서도 교육부 관계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줄 부분입니다.

○金載京 委員 호주하고 화상수업을 하나요, 대덕중학교는?

○教育局長 姜鎭洙 예, 타시설 자체도 지금 독서·논술지도도 우리 학교하고 정보원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내년에도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논술 그 다음에 진로지도 이런 방향은 다 지금 화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New-러닝 같은 것도 기반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教育局長 姜鎭洙 예,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실시해서 하나하나 확장을 해서 선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병행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타시·도가 우리 대전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教育局長 姜鎭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과학실험, 탐구실험실도 현대화 사업 우리가 과학기술도시를 혁신하는 대전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병행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안 하나요?

○委員長 吳丁燮 예,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십시오.

○金載京 委員 영재학교는 우리가 잘 추진을 하고 있지요?

○教育局長 姜鎭洙 예, 영재학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학습교과교수에 어떤 실적 같은 것은 어때요, 다른 시·도에 비해

대전시에서?

○教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과학영재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제도 직접 차관님이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또 그 담당하시는 실장님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의 노력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상당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어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런데 한 가지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아직 협의가 남아서, 거기에서 지금 부산만 있는데 저희들에게도 4개 정도를 하게 되면 대전, 충남, 충북, 강원을 해서 하나의 학교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경기지역에서 하나, 그 다음에 전라도 이쪽으로 해서 4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단지라든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하고 최종 협의가 남아서 몇 개 교를 확대할 것인지 그것만 아직 관심의 대상이 되고 법규를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답을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예를 들어 과학고가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있지요?

○教育局長 姜鎭洙 그렇지요, 전국 단위로도 저희들이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대전지역이 서울, 제일 어려운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영재아이들이 타시·도에 자꾸 유출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영재교육원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 저희들은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金載京 委員 어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인근에 있는 카이스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또 교감을 나누었고요,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카이스트에 많이 진출해서 대전지역 발전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교육국장께서 영재교육학생에는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教育局長 姜鎭洙 고맙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얘기를 하시고 또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局長 姜鎭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못 다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려나요, 학생이동현황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教育局長 姜鎮洙 예, 학생이동현황은 초·중은 우리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초·중등학생 이동현황을 좀 여쭙어보면 각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教育局長 姜鎮洙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자료까지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다음에 자료로 다 드리면 안 될까요?

○朴喜辰 委員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한번 말씀을 여쭙보면 모르고 계실까요?
구별 학생이동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東部教育廳教育長 金昌奎 동부교육장 김창규입니다.
이동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못 하고 계세요?

○東部教育廳教育長 金昌奎 예.

○朴喜辰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저희 대덕지역에서 보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教育廳教育長 金昌奎 요인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지금 갑작스런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인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요새의 추이로 본다면 교육적인 여건에 따른 인구이동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총론적으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적인 여건 때문에 인구이동현상 그리고 구도심에서의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요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교육여건 그리고 시설격차 여러 가지 환경격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개선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져야 할텐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2.3%에 비해서 사항별설명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요, 금년에는 아주 많이 상승되었다고 하나 전체 비율에 약 6.6%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교육 여건 차이 때문에 기존학교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시설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朴喜辰 委員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타 도시의 비율 또한 어떤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도심 확장과 학교 신설로 인해서 신설된 학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로 인해서 기존시설이 상대적으로 또 노후화 시설처럼 비쳐지고, 사실 노후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을 개선하는 데는 다른 사업보다 먼저 관심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도심권 안에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들과 구도심 학교는 시설이 낙후된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박탈감 같은 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시범적으로 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선정을 해서 하나 올렸는데 선정이 되면 그 학교를 전면 개축하는 것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를 시설 개선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현장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왜, 화장실이 개선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책정된 것도 보면 거의 학교마다 비슷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고 도시가스 신설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보면 학교마다 거의 같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차등적으로 계산해서 아주 정확하게 책정해야 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배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에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낙후된 시설 개선 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년에 거쳐서 시설투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10년 이상된 책·결상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급식실 부분에서 교실 배식하는 학교가 아직도 81개교나 있습니다.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찾아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가정에 화장실 부분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학교의 화장실 부분이 현대화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가 항목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자계획을 내년 중장기계획을 연동적으로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계획을 가지고 내년 안에 이 부분은 해결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수정내역에 보면 특수학교 운영지원에 따른 보조공익요원 인건비, 운영지원, 교구지원 이 예산 책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특수학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특수학급에 교재교구 재정비와 신시설 부분이 있는데요 「특수교육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되면서 학급당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령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 대전시내에 특수학급을 상당히 많은 양을 다시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3개 학급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특수교원의 증원이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홉 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특수교사 증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약 30학급 정도를 남기고 감행시켰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특수학급이 이 정도 늘 것이라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특수학급을 담당하시는 특수교사 정원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늘지 않으면 특수학급 편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편성하는 데 들어가는 1,000만원과 특사운영비를 계상했던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이 혹 교육청에서 관계자 단체와 협약한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통 특수학교하면 지적자폐성 장애아들을…….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특수학교가 아니고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金載京 委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 관내는 특수학교가 없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특수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教育局長 姜鎮洙 특수학교가 4개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학교의 커리큘럼 과정 같은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컨트롤합니까?

○教育局長 姜鎮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장애아들에 대한 교과서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教育局長 姜鎮洙 특수학교에.

○金載京 委員 개정판 교과서가.

○教育局長 姜鎮洙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기존의 교과서 역시도 학교에 그냥 배치를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그 교과내용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하셔서 정말 국가가 책임질, 자폐아이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무가 있다면 장애아들에게도 장애인과 못지 않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고 교수학습에 있어서도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도 편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것도 관리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教育局長 姜鎮洙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60억 1,56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변동금 등을 증감 조정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1조 1,186억 5,063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로 보전 등 6건에 14억 6,02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학교 시설환경 개선보다는 교육 내실화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희진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教育監 李元根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건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성고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주어진 예산 한 푼 한 푼이 낭비되지 않고 대전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보람있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회)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번안의 건(박희진 의원 외 6인 발의)

○委員長 吳丁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희진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희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박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변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2일 제4차 당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균형발전기금의 사업비 일부를 추가로 삭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균형발전기금 사업비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는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 외에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사업비 중 오류·선화동 음식특화거리 1,000만원과 충무자동차 특화거리 500만원, 목동·중촌동 맞춤형패션특화거리 500만원이 낭비성, 1회성 등 비효율적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총 2,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한 후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낭비성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여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희진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오정섭	박희진	김태훈	김재경
곽영교	심준홍	김인식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권태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教育廳)

부교육감	이원근
교육국장	강진수
기획관리국장	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	최재천
혁신복지담당관	윤문학
공보감사담당관	이병기
초등교육과장	이항기
과학직업정보과장	강신곤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중
행정지원과장	지보하
재정지원과장	김동엽
시설과장	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규
학무국장	황용주
관리국장	김철환
서부교육청교육장	양병옥
학무국장	서현식
관리국장	오창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정혜
대전평생학습관장	이상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원주
한밭교육박물관장	박종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백봉흠
대전교육정보원장	류재균